

# 오키나와현의 행정 개요

## 지속 가능한 오키나와의 발전과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는 사회의 실현에 힘쓴다

지금 세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인 'SDGs'가 진행 중이며,  
오키나와현에서도 '오키나와 고유의 SDGs'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민 모두가  
우치난추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섬을 만들고자 합니다.

## 오키나와현이 지향하는 **5** 가지 미래상

1. 오키나와 특유의 자연과 역사, 전통,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섬
2. 여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섬
3.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섬
4. 개방적인 교류와 공생의 섬
5. 다양한 능력을 발휘해 미래를 개척하는 섬





아름다운 산호초

# 자연을 보호하고 살리기

풍요로운 자연을 소중히 지키며, 사람들의 활동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산호초가 발달한 아름다운 바다, 여러 고유종과 희귀종이 서식하는 아열대의 숲 등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가진 오키나와. 이는 많은 사람을 매료시키는 자원이며, 오키나와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큰 힘이 됩니다. 오키나와현은 환경 보전뿐 아니라 자원 순환, 재생 가능 에너지 등 클린 에너지의 도입 촉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자연환경의 보전과 재생 및 계승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 및 생육하는 안바루 국립공원



이리오모테 섬에 있는 나라 폭포

### 《오키나와현 지정 희귀 야생 동식물종》

희귀 야생 동식물종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종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오사와가니 (민물게의 일종)



오키나와 야마타카마이마이 (달팽이의 일종)



이리오모테 난

### 《적토 유출 방지》

농지 주변에 식생대를 설치해 적토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그린벨트(식생대) 식재 모습

### 《녹지 조성 활동》

행정기관과 현민들이 연계하며 녹지 조성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의 묘목 식수 작업



제43회 전국 나무 키우기 축제

## 순환형 사회를 위해



더러운 물을 정화하는 나하 정화 센터



해안으로 밀려온 쓰레기 줍기



산업폐기물 관리형 최중처분장 아와 에코 파크

## 친환경 에너지 촉진



태풍 시에 기울일 수 있는 가도식 풍력 발전 사진 제공: 오키나와 전력 주식회사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



# 전통문화를 육성해 새로운 창조로

## 오키나와 문화를 다음 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지리적, 역사적 배경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문화는 오키나와의 커다란 매력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생활양식의 변화와 가치관의 다양화 등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에서는 현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문화 자원을 산업 진흥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오키나와에서 개최한 국제 가라테 대회

### 문화 산업의 진흥 및 창출



현대식으로 어레인지한 도자기 '아치문'



전통 염색 '빈가타' 잡화



공예품  
류큐 유리



전통 예능 에이사



현내 각 지역의 토착어 '시마쿠투바'를 배워 선보이는 아이들



우루마시의 중, 고등학생들이 선보이는 현대판 구미오도리 '기무타카노야마와리' ©아마와리 남만의 모임



오키나와의 옛 민가를 이용한 음식점과 피부 관리실



아늑한 분위기의 실내



현지 식재료를 사용한 오키나와 약선 요리



오키나와다운 풍경 만들기



오키나와의 옛 모습이 남아 있는 다케토미 섬의 마을

# 오키나와의 특징을 살린 마을 조성

## 풍토를 살린 오키나와 특유의 아름다운 경관은 지역의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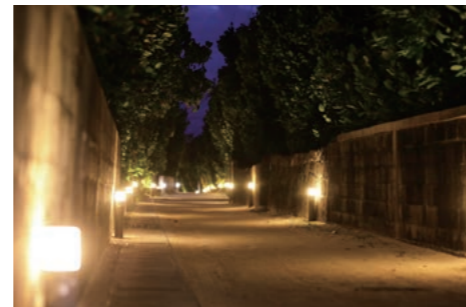
오키나와 경관의 특성으로는 풍요로운 자연과 독자적인 역사가 키워 온 '자연과 역사', 붉은 기와의 민가가 보존된 마을에서 엿볼 수 있는 '지역의 특성', 전통 행사와 생활에 기초한 경관으로서의 '사람과 생활', 대규모 개발 및 도로, 해안 등 '공공 공간 등'이 있습니다. 오랜 노력을 통해 지키며 형성해 온 다양성이 있는 경관과 풍경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오키나와현에서는 지역마다의 개성을 살린 가치 창조형 마을 조성을 진행 중입니다.



슈리성에서 이어지는 운치 있는 길, 긴조정 이시다미미치(돌길)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의 나미노우에 공



백사장길을 비추는 풋라이트, 도나키 섬



류큐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절벽 만자모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바라보는 절경, 가야우치반타



투명한 바다가 자랑거리인 이시가키 섬, 가비라 만



추정 나이 300살의 힌퐁 벵골보리수



신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하마가와우타키(성지) ©OCVB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 공간



시조(市鳥) 왕새매를 모티브로 한 미야코 공항 터미널 빌딩



오키나와의 구스쿠(성)를 이미지화한 구조의 오키나와 현립 박물관, 미술관



하늘과 바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오키나와 컨벤션 센터